



관련 자료 소개

1. 구술자 연보
2. 주요 참고 자료 목록
3. 구술자 원문 자료



육명심 연보

년 도	내 용
1932	음력 9월 10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부 육진금과 모 이명영 사이에서 외아들로 출생
1946	대전사범학교에 입학 이 시절부터 연극과 문학에 관심을 가졌음 초등학교 3학년 때 명창 장영찬의 판소리에 매료되어 국악 감상이 평생 취미가 됨
1948	사범학교 졸업 후 대전 산성초등학교 교사로 3개월 재직
1953	서울신학대학교 입학 1학년 설교실습시간에 '십자가의 의미'라는 제목의 설교를 한 후 학교와의 마찰로 학교를 그만둠
1955	연세대학교 영문학과 입학
1956	<제1회 연세문학상> 수상
1959	학보병으로 육군 제대 연희극예술연구회 활동 <제17포로수용소> 출연
1960	전국아동극경연대회 <편지> 연출
1961	연세대학교 영문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영문과에 희곡 전공으로 입학
1964	대전 목우회 화가 이동훈의 딸 이명희와 결혼(이후 이명희와의 사이에서 1남 2녀를 둌.) 부인을 통해 처음 사진을 접함 대전 대성고등학교 교사생활 시작 대전일보사 주최 대전 동학사에서 열린 《전국촬영대회》에서 가작 1점, 입선 2점으로 입상
1966	서울 배재고등학교 교사 생활 시작 《제1회 동아국제사진살롱》 입선으로 사진계 입문
1967	《제5회 동아사진콘테스트》 입선 <내아들더울세라>, <미아들> 《제16회 국전》 입선 <노경> 중앙사우회 《CFC 회원전》(시립공보관)
1967	<인상> 시리즈 작업 시작
1968	《제3회 동아국제사진살롱》 흑백부문 입선 《제17회 국전》 입선 <Rolling>
1969	《제4회 동아국제사진살롱》 은상 수상 <백수> 《제7회 동아사진콘테스트》 칼라 입선 <Heading Traing>
1970	《제8회 동아사진콘테스트》 칼라 입선 <약동> 《제5회 동아국제사진살롱》 입선
1971	《제9회 동아사진콘테스트》 칼라 입선 <불탄일>외 1점 《제6회 동아국제사진살롱》 입선 <표정>

년 도	내 용
1972~1974	서라벌예술대학 사진과 전임강사 대우
1973	<예술가의 초상> 작업 시작
1974	《제12회 동아사진콘테스트》 특선 <사별>
	《제23회 춘계국전》 입선 <줄말>
1975	<세계여성사진전> 출품(국립현대미술관)
	《제24회 춘계국전》 입선 <작업>
1975~1980	신구전문학교 사진과 조교수
1977	『현대시문학』에 「시인의 얼굴」 연재
1978	『한국현대미술사-사진』 최인진과 공동 집필(국립현대미술관)
1979	<백민> 작업 시작
1981	『사진의 표현과 기법(4)』(사진과평론사) 번역 출간
	일본 『아사히카메라』, 『현대한국사진가집』에 14명의 한국의 사진작가 중 한 명으로 소개
1981~1999	서울예술전문대학 사진과 교수
1982~1999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강사
1983	《한국대표작가 10인전》(한마당갤러리)
	<검은 모살뿔> 시리즈 촬영
1983~1985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진과 강사
1985	<장승> 시리즈 작업 시작
1987	『세계사진가론』 출판(열화당)
1988~1991	숙명여자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강사
1992	미국현대사진가 인터뷰를 위하여 미국 방문(뉴욕, 시카고, 로체스터, 샌프란시스코)
	듀안 마이클, 존 팔을 비롯해 13명 인터뷰
1993	《사진과 image》 출품(선재미술관)
	《제24회 동아 사진콘테스트》 심사위원장
1994	《제1회 육명심 개인전》(인테코 화랑)과 함께 사진집 『육명심』 출판(사진예술사)
	《현대사진의 흐름》 출품(예술의 전당)
	《민중미술 15년전-1980~94》 출품(국립현대미술관)
	<검은 모살뿔> 시리즈 촬영
1995	《우리의 환경사진전》 출품(예술의 전당)
	《이 세상의 아이들》 출품(삼성포토스페이스)
1996	삼성포토스페이스 개관 1주년 기념전 《사진은 사진이다》 출품(삼성 포토스페이스)
	한국사진가연합 이사장
1997	『검은 모살뿔』 초판 출판(장산출판사)
1998	<히말라야 사람들> 작업 시작
	《98' 사진 영상의 해》 조직위원
1999	서울예술대학 정년퇴임 기념전시 《하늘 아래 첫 땅-Tibet》(덕원미술관)

년 도	내 용
2000~2001	상명대학교 대학원 겸임교수
2001	『미명의 새벽』 7인 합동 사진집(눈빛출판사)
2004	《육명심 초기 사진전》(대전 포토클래스)
2005	《제1회 동강국제사진축제》출품(동강사진박물관) 『사진으로부터의 자유』출판(눈빛출판사)
2006	《백민(白民)》(한미사진미술관)
2007	《한국현대사진의 풍경》출품(서울시립미술관) 사진집 『문인의 초상』출판(열림 출판사)
2008	<검은 모살땀> 시리즈 추가 촬영 사진집 『장승』출판(웅진출판사)
2009	사진집 『검은 모살땀』 증보판 출판(눈빛출판사) 《한국대표작가 초대전》출품(한화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소장품 기획전-사진전》출품(서울시립미술관 남서울분관)
2010	《현대사진의 면모 사진전-아날로그와 디지털》출품(한국미술관)
2011	사진집 『백민(白民)』출판(한미사진미술관) 사진집 『예술가의 초상』출판 및 전시(한미사진미술관)

주요 참고 자료 목록

* 이 자료 목록은 육명심 선생이 매체를 통해 발표한 글 중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월간지/계간지	제 목	잡 지 명	발 행 일
1970년대	「아이젠슈테트의 눈(1)」	『포토그래피』	1969.11
	「홀려간 사진작가 줄리아 마가렛 카메론」	『포토그래피』	1969.11
	「아이젠슈테트의 눈(2)」	『포토그래피』	1969.12
	「아이젠슈테트의 눈(3)」	『포토그래피』	1970.1
	「홀려간 사진작가 유젠 아뜨제」	『포토그래피』	1970.1
	「아이젠슈테트의 눈(4)」	『포토그래피』	1970.2
	「홀려간 사진작가 에드워드·웨스턴」	『포토그래피』	1970.3
	「아이젠슈테트의 눈(5)」	『포토그래피』	1970.4
	「전쟁사진의 영웅 로버트 카파」	『포토그래피』	1970.5
	「아이젠슈테트의 눈(6)」	『포토그래피』	1970.6
	「아이젠슈테트의 눈(7)」	『포토그래피』	1970.7
	「아이젠슈테트의 눈(8)」	『포토그래피』	1970.8
	「아이젠슈테트의 눈(9)」	『포토그래피』	1970.9
	「아이젠슈테트의 눈(10)」	『포토그래피』	1970.11
	「세계사진작가순례1-로베르도아노」	『포토그래피』	1970.12
	「세계사진작가순례2-유스프카슈」	『포토그래피』	1971.1
	「세계사진작가순례3-브랏사이」	『포토그래피』	1971.2
	「세계사진작가순례4-웨르나비쉴」	『포토그래피』	1971.3
	「세계사진작가순례5-도로디랭」	『포토그래피』	1971.5
	「세계사진작가순례6-에드반텔엘스켄」	『포토그래피』	1971.7
	「세계사진작가순례7-폴스트랜드」	『포토그래피』	1971.9
	「세계사진작가순례8-힐립할스만」	『포토그래피』	1971.10
	「세계사진작가순례9-에른스트하스」	『포토그래피』	1971.11
	「세계사진작가순례11-안드레아스하이닝거」	『포토그래피』	1971.12
	「세계사진작가순례12-윌리엄클라인」	『포토그래피』	1972.1
	「세계사진작가순례13-헤리칼라한」	『포토그래피』	1972.2
	「세계사진작가순례14-아우구스트잔더」	『포토그래피』	1972.4
	「세계사진작가순례15-윈부르크」	『포토그래피』	1972.6
	「세계사진작가순례16-빌브란트」	『포토그래피』	1972.7
	「어빙펜의 인물사진-피카소」	『영상』	1975.봄
	「사진예술론」	『영상』	1975.여름
	「현대문제사진시리즈-다이안 아버스」	『영상』	1975.여름

월간지/계간지	제 목	잡 지 명	발 행 일
1980년대	「세계문재작가시리즈-듀안마이클」	『영상』	1976.1
	「세계사진사조」	『영상』	1976.3(특집호)
	「한국의 예술가1~17」	『영상』	1978.8~1980.1
	「서평-눈으로 보는 사진의 역사」	『영상』	1978.8
	「한정식의 '나무' 사진전을 보고」	『영상』	1979.4
	「작품 刑」	『영상』	1979.6
	「사람1~19」	『영상』	1980.2~1981.8
	「내가 좋아하는 사진 모델」	『현대여성』	1980.8
	「관상쟁이」	『신동아』	1981.4
	「사진과 전통의 초점」	『문예진흥』	1981.5
	「오늘의 세계사진가들1-쥬디 데이터」	『영상』	1981.7
	「오늘의 세계 사진가들2-제리 웃엘스만」	『영상』	1981.8
	「오늘의 세계 사진가들3-쥬셉 쿠텔카」	『영상』	1981.9
	「백민1~4」	『영상』	1981.9~1981.12
	「오늘의 세계 사진가들4-에머트 고웬」	『영상』	1981.10
	「오늘의 세계 사진가들5-마이너 화이트」	『영상』	1981.11
	「오늘의 세계 사진가들6-엘스켄」	『영상』	1981.12
	「사진, 이명희 시, 이미지의 합창-승방에서」	『영상』	1982.1
	「오늘의 세계 사진가들8-리차드 아베돈」	『영상』	1982.2
	「오늘의 세계 사진가들(세계의 사진가들)9-리 프리드랜더」	『영상』	1982.3
	「오늘의 세계 사진가들10-브루스 데이비드슨」	『영상』	1982.4
	「오늘의 사진가11-엘리엇 어윗트」	『영상』	1982.5
	「영상세계에 영향을 끼친 사람(오늘의 사진가)12-위지의 인격과 작품」	『영상』	1982.6
	「영상세계에 영향을 끼친 사람(오늘의 사진가)13-빌 브란트」	『영상』	1982.7
	「사진의 이해(오늘의 사진가)14-에드워드 스타이켄」	『영상』	1982.8
	「오늘의 사진가15-라르피그」	『영상』	1982.9
	「영상세계에 영향을 끼친 사람(오늘의 사진가)16-필립 할스만」	『영상』	1982.10
	「영상세계에 영향을 끼친 사람17-아우구스트 잔더」	『영상』	1982.11
	「영상세계에 영향을 끼친 사람18-까르피에 브렛송」	『영상』	1982.12
	「영상세계에 영향을 끼친 사람19-아놀드 뉴먼」	『영상』	1983.1
	「새로운 사진의 이해1-오토 슈타이너트」	『월간사진』	1983.2
	「영상세계에 영향을 끼친 사람20-유진 스미드」	『영상』	1983.2
	「집중연구-사진과 미술: 전달매체로서의 사진」	『계간미술』	1983.봄
	「새로운 사진의 이해2-마이너 화이트」	『월간사진』	1983.3

월간지/계간지	제 목	잡 지 명	발 행 일
	「영상세계에 영향을 끼친 사람21-알프레드 스티그리츠」	『영상』	1983.3
	「새로운 사진의 이해3-리차드 아베돈」	『월간사진』	1983.4
	「영상세계에 영향을 끼친 사람22-외젠느 앓제」	『영상』	1983.4
	「새로운 사진의 이해4-브루스 데이비드슨」	『월간사진』	1983.5
	「시각의 다양성 차원적 변이의 미학: 미국의 사진작가 톰 하르의 작품세계」	『공간』	1983.5
	「영상세계에 영향을 끼친 사람23-에드워드 웨스턴」	『영상』	1983.5
	「영상세계에 영향을 끼친 사람24-모홀리나기」	『영상』	1983.6
	「사진과 전통의 초점」	『영상』	1983.7
	「미시적 세계로 본 자연의 신성: 로만 비시니엑의 사진세계」	『공간』	1983.7
	「영상세계에 영향을 끼친 사람25-폴 스트랜드」	『영상』	1983.8
	「영상세계에 영향을 끼친 사람26-만레이」	『영상』	1983.9
	「영상세계에 영향을 끼친 사람27-랭거 파츨」	『영상』	1983.10
	「영상세계에 영향을 끼친 사람28-안드레 케르테스」	『영상』	1983.11
	「영상세계에 영향을 끼친 사람29-위커 에반스」	『영상』	1983.12
	「논단-현대사진의 전개」	『영상』	1984.1
	「영상세계에 영향을 끼친 사람들30-브랏사이」	『영상』	1984.1
	「영상세계에 영향을 끼친 사람들31-에르히 잘로몬」	『영상』	1984.2
	「젊은영상추천-유재학」	『영상』	1984.3
	「영상세계에 영향을 끼친 사람들32-도로디어 랭」	『영상』	1984.3
	「영상세계에 영향을 끼친 사람들33-해리 캐라한」	『영상』	1984.4
	「영상세계에 영향을 끼친 사람들34-로버트 카파」	『영상』	1984.6
	「영상세계에 영향을 끼친 사람들35-로베르 드와노」	『영상』	1984.7
	「영상세계에 영향을 끼친 사람들36-로버트 프랭크」	『영상』	1984.9
	「영상세계에 영향을 끼친 사람들37-윌리엄 클라인」	『영상』	1984.10
	「영상세계에 영향을 끼친 사람들38-오토 슈타이너트」	『영상』	1984.11
	「영상세계에 영향을 끼친 사람들39-엘스켄」	『영상』	1984.12
	「영상세계에 영향을 끼친 사람들40-리차드 아베돈」	『영상』	1985.1
	「영상세계에 영향을 끼친 사람들41-리제트 모델」	『영상』	1985.2
	「현대사진의 사상과 이해」	『영상』	1985.3
	「젊은 영상을 추천한다1-최광호의 영상세계」	『영상』	1985.4
	「젊은 영상을 추천한다2-박병규의 영상세계」	『영상』	1985.4
	「서평-사진의 예술성에 관한 간단명료한 규정」	『영상』	1986.5
	「동아 국제사진 살롱과 20년을」	『동우』	1986.5
	「예술계의 총결산-질적 전문성의 도약」	『예술계』	1987.12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의 사진세계」	『영상』	1987.12
	「당신도 사진작가가 될 수 있다-사진의 예술적 특성과 감상법」	『월간샷터』	1988

월간지/계간지	제 목	잡 지 명	발 행 일
	「과감한 세대교체가 이루어져야」	『한국사협』	1988.1
	「연구논단1-현대사진과 미술의 연관성 (1/3)」	『한국사협』	1988.8
	「연구논단2-현대사진과 미술의 연관성 (2/3)」	『한국사협』	1988.9
	「연구논단3-현대사진과 미술의 연관성 (3/3)」	『한국사협』	1988.10
	「Art Monthly의 생활 에세이-아, 쌍소리여」	『예술계』	1988.12
	「장승」	『사진예술』	1988. 12
	「장승」	『사진예술』	1989. 4
	「오늘의 작가5-두 프레임을 하나의 형식으로 표현한 최광호」	『사진예술』	1989. 9
	「내가 좋아하는 사진-에드 반 데어 엘스켄의 사진」	『파인힐』	1989. 여름
	「까르띠에 브렛송의 사진 미학」	『영상』	1989. 11
1990년대	「오늘의 작가9-사상의 복합적인 심도를 표현한 김영춘」	『사진예술』	1990.1
	「사진칼럼12-반성과 자각 그리고」	『사진예술』	1990.5
	「사진과 말 그리고 글」	『파인힐』	1990.봄
	「사진의 소재와 주제」	『파인힐』	1990.여름
	「사진, 더하기와 빼기」	『파인힐』	
	「사진과 배설」	『파인힐』	1990.겨울
	「사진칼럼 19-스승과 제자」	『사진예술』	1990.12
	「미적 지향성의 시도」	『한국사협』	1991.1
	「사진과 자아의 발견」	『파인힐』	1991.봄
	「책 한보통이와 쌀 한자루」	『월간샘터』	1991.11
	「정통적 사진의 재조명과 새로운 가능성의 제시」	『예술세계』	1992.2
	「관소리와 사진」	『객석』	1992.3
	「아류(亞流)」	『파인힐』	1992.봄
	「사진과 풍토(風土)」	『파인힐』	1992.여름
	「하나님의 예비」	『월간에세이』	1992.12
	「한 가지 충격」	『파인힐』	1992.겨울
	「카메라를 통한 '나'와 '너」	『파인힐』	1993.봄
	「장자와 비행기」	『문학사상』	1993.10
	「사진가의 경쟁상대」	『파인힐』	1993.가을
	「정선과 풍경사진」	『파인힐』	1993.겨울
	「화제의 전시-현대사진의 흐름전에 대한 조명」	『사진예술』	1994.3
	「예술가의 특권」	『파인힐』	1994.봄
	「생명교육」	『파인힐』	1994.여름
	「강운구 사진전의 시대적 조명」	『파인힐』	1994.가을
	「외래어종과 사진계」	『파인힐』	1994.가을

월간지/계간지	제 목	잡 지 명	발 행 일
	「영상언어의 문필가」	『파인힐』	1994. 겨울
	「화제의 전시-이완교의 사진세계」	『사진예술』	1994.12
	「이용순의 사진을 어떻게 이해할까」	『사진예술』	1995.1
	「'나비의 꿈'과 영상 시대」	『파인힐』	1995. 여름
	「한 달 산 스님 남편이 남긴 것」	『샘이깊은물』	1995.7
	「사진과 삶은 하나인 것을」	『파인힐』	1995. 가을
	「과연 사진은 죽었는가」	『파인힐』	1995. 겨울
	「현대사진과의 만남1-존팔」	『사진예술』	1996.1
	「현대사진과의 만남2-바바라 크레인」	『사진예술』	1996.2
	「현대사진과의 만남3-한스 벨네만」	『사진예술』	1996.3
	「현대사진과의 만남4-켄네드 조셉슨」	『사진예술』	1996.4
	「중국 노신미술대학 사진과 대학」	『사진예술』	1997.8
	「사진가는 사진가가 아니다」	『사진예술』	1998.1
	「사진과 만화」	『사진예술』	1998.2
	「우리 사진사의 원조(元祖)는?」	『사진예술』	1998.3
	「결국은 마음이 아닌가?」	『사진예술』	1998.4
	「직통사진(直通寫眞)」	『사진예술』	1998.5
	「사진은 x을 싸는 것」	『사진예술』	1998.6
	「누가 사진을 갖고 놀 수 있을까」	『사진예술』	1998.7
	「칼로 사진을 베리라」	『사진예술』	1998.8
	「우리 옛 그림과 사진」	『사진예술』	1998.9
	「인물사진을 찍을 때에는」	『사진예술』	1998.10
	「사진의 원점(原点)」	『사진예술』	1998.11
	「우리 강산. 이 땅이 좋아라」	『사진예술』	1998.12
	「어느 구름에서 비가 내릴지 모른다」	『사진예술』	1999.1
	「외국유학에서 뒀을 배워왔는가?」	『사진예술』	1999.2
	「절대 고독」	『사진예술』	1999.3
	「사진으로부터의 자유」	『사진예술』	1999.4
	「왜 사진을 찍을라카나」	『사진예술』	1999.5
	「서평-한국사진역사의 본격 연구에 기폭제, 「방대한 자료 폭넓게 섭렵해 체계화」	『출판저널』	1999.5
	「사진이란 뭇입니까」	『사진예술』	1999.7
	「사진과 북아트」	『사진예술』	1999.12
	「우리 강산. 이 땅이 좋아라」	『사진예술』	1999.12
2000년대	「수수하고 졸박한 아름다움」	『진리의 벗이 되어』	2000.1

월간지/계간지	제 목	잡 지 명	발 행 일
	「자기 자신의 발견」	『사진예술』	2000.2
	「너와 나의 눈맞춤」	『사진예술』	2000.3
	「아, 상상력의 무한한 세계여」	『사진예술』	2000.5
	「몸과 사진」	『사진예술』	2000.6
	「사진과 삶의 존재방식」,	『사진예술』	2000.7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사진예술』	2000.8
	「사진사의 원점」	『사진예술』	2000.9
	「구세대 대 신세대」	『사진예술』	2000.10
	「오직 인도주의 뿐」	『사진예술』	2000.12
	「사진은 사진이다」	『사진예술』	2001.1
	「우리는 사람이다」	『사진예술』	2001.2
	「사진가와 달리기 선수」	『사진예술』	2001.3
	「떼어놓고 바라보기」	『사진예술』	2001.4
	「표현보다는 동조를」	『사진예술』	2001.5
	「사진일기」	『사진예술』	2001.7
	「질문」	『사진예술』	2001.8
	「타인의 시선과 말의 구속력」	『사진예술』	2001.9
	「일기 쓰기」	『사진예술』	2001.11
	「경계선」	『사진예술』	2002.1
작품집/도록	제 목	서 명	발 행 일
	「한국 현대사진의 역사적 조망(1945~1990)」	『한국현대사진의 흐름전』	1994
	「영실과 백운철」	『영실2』	1995
	「사진과 '발견'의 시작」	『사진은 사진이다』	1996
단 행 본	제 목	발 행 처	발 행 일
	『한국현대미술사-사진, 국립현대미술관(최인진, 육명심 공저)』	동화출판공사	1978
	『사진의 표현과 기법(와타나베 츠도무 저, 육명심 역)』	1980	
	『세계사진가론 1900~1960』	열화당	1987
	「한 달 산 스님 남편이 남긴 것」,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	샘터사	1998
	『사진으로부터의 자유-사진과 삶에 관한 글모음』	눈빛	2005
	「내가 만난 사진가 강운구」, 『여행하는 나무-이상엽 편』	이미지프레스	2005

논문/학술지/연감		제목	발행처	발행일
	「근대미술에 있어서의 사진의 문제」	홍익대학교 미술사학과	1975	
	「독일의 창조사진 운동」 『중앙예술, Vol.7』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학도호국단	1981	
	「사진」, 『문예연감1986』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7	
	「정중동의 꾸준한 진전」, 『문예연감1990』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91	
	「사진/전문화 · 세계화의 새 바람」, 『문예연감1995』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96	

장 승

육 명 심

어느 방송대담에서 해외여행을 많이 하였다는 한 예술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지금까지 통틀어 일곱 번 해외에 나갔다 왔는데 처음 한두 번 나갔을 때는 새로 접하는 외국의 모든 문화나 예술에 무조건 일방적인 압도를 당하여 우리 것이 미약하게 보였다. 그런데 세 번째 외국에 나가면서 부터는 꼭 그렇지만 않다는 생각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 번에 돌아 볼 때는 우리 것도 그들 것만 못지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후 거듭 해외나들이를 하는 가운데 어느덧 그들은 그들대로 우리는 우리들대로 저마다 나름대로의 문화적 가치가 있다는 새로운 사실에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말은 결국 불교적인 표현을 빌리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는 비교의식의 극복이라 할 수 있다. 원래 문화나 예술이니 하는 것은 운동경기와는 달리 서로 우열(優劣)을 따질 성질의 것이 아니다. 즉 어디까지나 정신적인 독자성에 뿌리를 두고있기 때문에 서양은 서양이요 우리는 또한 우리일 따름이다. 그리고 서양 것이 그 나름의 가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것은 우리 나름의 또 다른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는 본디 인간이 저마다 하나의 절대적인 소유주인 까닭에 그 값어치를 함께 견주어 매길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독자성의 문제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일반적으로 비교의식에서 오는 열등감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그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 죽대없이 남에게 놀아나는 것을 일컬어 “남의 장단에 춤춘다”고 한다. 국제적으로 우리가 바로 이런 꼴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본다. 남이야 무엇이랴 하든 저마다 제 생각을 가지고 독자적인 길을 가는 것이 제대로 자기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민족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실인 즉 누구나 저마다 독자적인 제자리에 서게 되면 부질없는 비교의식이 없어지는 법이다. 그리고 이에 헤어지면 마침내 열등감도 따라서 사라지는 것이다. 사진도 비교의식의 극복을 위해서는 우리의 독자적 제 위치를 찾아서 세계 속에 바로 서야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지금 내 책상머리에는 조그만 태극기가 꽂혀 있다. 내판에는 70년대 후반 한국적 사진미학을 이룩하기 위한 새 출발을 다짐하는 뜻에서 꽂아 놓은 것이다. 이러한 결의와 함께 처음 시작한 것이 ‘백민(白民)’작업이었다. 그리고 이 작업의 연장으로 84년에 새로 ‘장승’ 작업을 착수하였던 것이다. ‘백민’이란 사진을 찾아보면 ‘아무런 벼슬이 없는 일반 백성’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는 시체말로 ‘민중’이라는 뜻인데 구태어 생소한 단어인 ‘백민’을 택한 까닭은 이 단어가 갖는 전통적인 맛과 아울러 민중이니 서민이라는 말을 요즘 너무 흔하게 쓰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이 작업은 이 땅에 목숨을 받아 태어나서 나라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우리네 전통적인 토

작인들의 본모습을 파고드는 것이었다. '장승' 작업은 이러한 나의 입장을 더 한층 깊숙이 추구해 들어간 것이라 하겠는데 이들이 만들어 세운 장승은 바로 이들의 얼굴이요 또한 이들의 체취가 고스란히 배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백민'을 찍으러 주요 현대문명의 손길이 미처 닿지 않은 오지(奧地)로만 찾아다녔다. 그런데도 이미 산업사회의 물질이 워낙 거세게 밀어닥쳐서 우리의 된장과 고추장맛 그리고 흠냄새가 뺄속까지 배어 있는 토착적인 얼굴 모습을 만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렇게 헤매는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은 거의 사라졌으나 어찌다 마을어귀에서 만나는 장승에서 이들의 숨결과 체취 그리고 삶의 양금이 그대로 남아 있어 나의 가슴을 강하게 울렸다. 이 '백민' 작업과 '장승' 작업은 이렇듯 하나로 맞물린 것이었다. 그러나 '장승' 작업으로 넘어오면서 나에게서는 새로운 변신이 있었다. 즉 한국사람이라는, 인간에 대한 관심에서 심령적 진실(spiritual reality)이라는 쪽으로 사진의 방향이 틀어진 것이다. 달리 말해서 한국인의 토착적인 인간미의 추구로부터 이들의 집단적 무의식 속에 맥맥히 관류하고 있는 영맥(靈脈)을 짚어 나아가는 데로 나의 관심이 쏠리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장승' 작업은 나로 하여금 "나는 카메라의 무당이며 영매(靈媒)같은 존재로서 하늘은 나를 통해 자기를 현시(顯示)한다"는 새로운 인식의 문턱에 들어섰다.

'장승' 작업을 하면서 '삼국유사'를 몇 번이나 거듭해서 읽었다. 구약성경이 유대민족의 심령적 원천이라면 이 책은 우리겨레의 심령적 모태(母胎)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일연(一然)이 불교적 입장에서 썼다고 하나 사머니즘이 그 밑바탕을 이루고 있어 우리 본래의 고유한 토착적인 정신세계가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는 것이다. '삼국유사'를 읽으면서 이 속에 담긴 방대한 심령적 진실의 세계를 이제 나는 갓 입문하였을 뿐이라고 생각하였다. 지금 이 작업은 냉정하게 반성하건데 다만 장승에만 매달렸을 뿐 이것이 서있는 땅의 진실과 그 위로 끝없이 펼쳐진 초월적인 삶의 공간이 내 사진에서 대부분 놓치고 있는 부분이다. 앞으로 이 작업의 방향은 기계 문명이 이룩한 산업사회 속에서 이를 지탱하고 있는 정신세계의 심령적 원형을 추구함으로써 물질문명을 당당히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우리민족 고유의 본원적 생명력과 원초적인 순수성을 부활시키는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지금 나의 바람은 장차 내가 살고 있는 우리시대의 새로운 '삼국유사'를 사진으로 고쳐 쓰는 일이다. 이를 위해 우리네 심령세계의 근원적 지평을 향하여 오직 앞만 보고 꾸준하게 구도자의 길을 가려한다.

* 『사진예술』, 사진예술사, 1989.5, 통권1호, pp.26~33에 실린 글을 재수록하였다.

